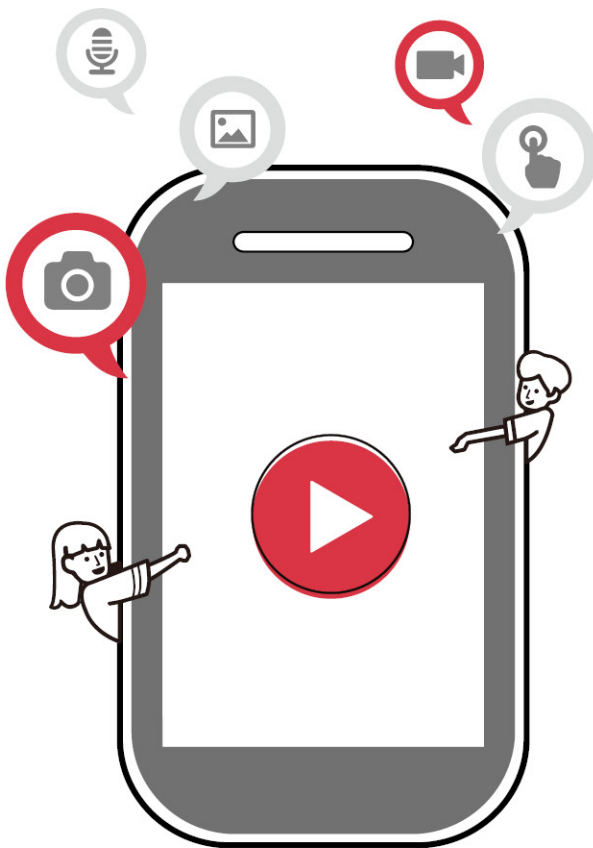


2021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 유튜브 게임 방송,
청소년 등장 채널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CONTENTS

I 2021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 게임 방송 채널

1. 들어가며	04
2. 모니터링 개요	06
3. 분석결과	07
4. 나가며	17

II 2021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 청소년 등장 채널

1. 들어가며	20
2. 모니터링 개요	22
3. 분석결과	23
4. 나가며	39

부록	유튜브 모니터링 내용분석 지표(가이드라인)	42
----	-------------------------	----

2021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게임 방송 채널

본 사업은 (사)탁틴내일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수행기관의 의견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들어가며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20)¹⁾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이용률은 94.6%로 '16년과 '18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TV, OTT 서비스, 종이잡지/책, 인터넷만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등 다른 매체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청소년의 82.1%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고, 코로나 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또래와의 대면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보여 진다.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이용이 증가한 것은 아동·청소년뿐만이 아니다. 2020년 조사 결과 만 3세 이상의 응답자 중 92.7%가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하는데 이는 2019년에 81.2%였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전체 응답자의 75.8%는 '하루 1회 이상'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했다. 3-9세 아동은 76.5%가, 10대 청소년은 82.7%가 '하루 1회 이상'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하며 전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특히 10대 청소년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연령 중 가장 높았다. 1주 평균 동영상 서비스 이용시간은 전체 평균 6.0시간으로 전년도 4.5시간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1주 평균 동영상 서비스 이용시간은 3-9세 아동이 5.6시간이었고, 10대 청소년은 7.9시간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어린 유아기부터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이 다양화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YouTube)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87.9%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1.0% 증가한 결과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²⁾.

2021년 게임이용자 실태조사(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93.7%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게임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게임 방송을 보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다. 아동·청소년이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오락성 추구 동기와 정보 추구 동기로 나타난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8)³⁾. 청소년들은 게임 방송 통해 주로 게임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게임 실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 외에도 대리만족, 시간보내기, 심리적 위안 등의 이유로 시청하기도 한다.

1)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2020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8). 어린이, 청소년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실태조사

http://daitda.or.kr/_thirdparty/webpdf/web/viewer.html?file=/data/files/2019/07/12/24435416728ac1a30c86d51f2afe193e.pdf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 캐릭터 등의 표현 방법에 대한 게임의 선정성 및 성차별 등에 대한 우려는 예전부터 존재했다. 뿐만 아니라 게임 플레이 과정에서 성차별·성희롱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게임 플레이 과정에서 성적 욕설이나 공격 등의 형태로 성차별이나 성희롱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이 83.0%로 매우 높은 현실이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1)⁴⁾.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다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게임 방송에서 게이머가 성인지감수성이 낮은 발언을 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 콘텐츠의 선정성과 게임 내 성차별·성희롱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온라인 게임 방송의 성차별·성희롱 문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사)탁틴내일에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2021 대중매체 양성평등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게임채널 속 성차별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229개의 동영상을 모니터링 하였다. 모니터링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에 연구된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를 기반으로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미디어 및 모니터링 관련 전문가 3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링단은 대학생 총 8명(남 4명, 여 4명)으로 구성하였다. 모니터링단을 선정하기에 앞서 모니터링 단원들을 대상으로 사전검사(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사전검사 평균점수가 높은 지원자로 모니터링단으로 선정하였다. 모니터링단의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성인지감수성 교육(1회)과 모니터링 중병 및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교육(1회)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필터링할 수 있는 ‘블링’ 사이트를 이용하여 V-log, 구독자, 남녀, 0~24세로 필터링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채널선정은 1차적으로 ‘게임 방송’, ‘구독자’, ‘재생수’로 선정하였으며, 2차적으로 채널 주요 이용자 성별 ‘남·녀’, 주요 이용자 연령 ‘0~24세’로 필터링 하였으며 가장 인기 있는 유튜브 게임 방송 채널을 선정하였다.

4) 한국콘텐츠진흥원(2021). 2021 게이미이용자 실태조사.

<https://portal.kocca.kr/portal/bbs/view/B0000204/1950736.do?menuNo=200247&categorys=4&subcate=58&cateCode=0#>

2 모니터링 개요

유튜브 순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채널을 필터링한 결과 1위부터 100위까지 순위 중 가장 상위에 도출된 10개의 게임업체 채널을 우선 선정하였다. 이 중 게임회사 및 게임 방송사가 운영하는 마케팅 채널, 해외 운영채널, 최근 3개월 이내에 업로드 된 영상이 없는 채널을 제외한 후 상위 4개의 채널(A, B, C, D)을 선정하였다. 채널 선정 후 각 채널별로 2021년 8월~9월에 업로드 된 영상을 수합하였다. 그 결과 모니터링 대상 유튜브 게임 방송 동영상은 총 229개였고, 전체 재생시간은 4,701분 10초였다.

모니터링 된 채널은 2021년 10월 25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A채널은 구독자 197만명, 분석대상 영상은 64개, B채널은 구독자 175만명, 26개의 영상이 분석대상이었다. C채널은 구독자 175만명으로 36개의 영상이 분석 대상이었고, D채널은 구독자 169만명으로 업로드 된 영상 중 103개가 분석대상이었다.

- ❖ 모니터링 장르: 유튜브 게임채널
- ❖ 모니터링 기간 : 2021년 10월 25일~11월 12일
- ❖ 모니터링 대상 : 선정된 게임채널 중 2021년 8월~9월에 업로드 된 영상
- ❖ 모니터링 영상 수 : 229개 (재생시간: 4,701분 10초)
- ❖ 모니터링 인원 : 8명 (남4, 여4)

〈표 II-1〉 모니터링 대상 유튜브 게임채널

NO	채널 명	구독자 수 (2021.11.기준)	분석영상 수
1	A	197만명	64개
2	B	175만명	26개
3	C	175만명	36개
4	D	169만명	103개
합 계			229개

3 분석결과

1) 모니터링 영상 기본정보 분석

게임채널 모니터링 시 성차별과 관련하여 성별 고정관념 강조, 특정 성 비하, 성적 대상화, 외모 지상주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조장하는 장면 등이 등장하는지 주요 내용으로 살펴보았다. 게임채널 모니터링 과정에서 등장하는 게임에 대한 직접 모니터링은 제외하고 유튜브의 대사, 대화 및 자막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성차별 내용이 나타난 경우는 13건,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216건이었다.

〈표 Ⅲ-1〉 성차별적 내용유무

성차별 내용	개수
있음	13
없음	216
합계	229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적 대상화가 9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성별 고정관념 6회, 외모 지상주의 4회, 특정 성 비하 2회로 나타났다. 성희롱 및 성폭력적 장면을 조장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차별영역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영역에 해당되는 영상도 있었지만, 여러 영역의 성차별적 내용이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표 Ⅲ-2〉 모니터링 내용분석 영역

영역	횟수	유형 및 구분 ¹⁾		
		화면	대사	자막
1. 성별 고정관념	6	5	6	7
2. 특정 성 비하	2	1	2	1
3. 성적 대상화	9	1	1	2
4. 외모 지상주의	4	2	6	6
5. 성희롱 및 성폭력적 장면	0	0	0	0
합계	21	9	15	16

1) 횟수, 유형 및 구분(화면, 대사, 자막, 기타)은 한 영상에서 중복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음. 이에 성차별 영상 개수와 무관하게 중복 응답한 결과를 도출함

성차별이 나타나는 13개 영상 중 성차별적 내용이 핵심적 주제인 경우와 여러 주제 중 하나로 다룬 경우는 각각 1개였고, 성차별 내용이 전체 영상 중 짧게 언급된 경우는 11개로 나타났다.

〈표Ⅲ-3〉 성차별적 내용의 중심성

성차별 중심성	동영상 수
성차별적 내용이 핵심적 주제이다	1
여러 주제 중 하나이다.	1
짧게 언급되었다.	11
합계	13

2) 모니터링 내용분석(게임채널)

모니터링 분석 결과 게임 방송 채널 속 영상 내에서 성별 고정관념 강조, 특정 성 비하, 성적 대상화, 외모 지상주의의 내용이 나타났다. 성차별성의 범주는 명확하게 나뉘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1) 성별 고정관념

유튜브 게임 방송에서는 성별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사례가 있었다. 데이트할 때 남성이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을 여성이 좋아한다는 설정이나, 남성은 여성을 보호하는 존재로 그려지는 경우들이 있었다. 어머니는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존재로 그 역할을 한정하기도 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공간 꾸미기를 잘한다는 편견이 반영되어 남성이 공간 꾸미기를 잘했을 때 ‘의외로’라는 반응을 하는 등의 성별 고정관념이 나타나기도 했다.

분석내용



게임 플레이를 설명하는 도중 끊어진 다리를 건너야 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다. 갑자기 유튜버는 연애편지이라며 여사친, 남사친에게 써먹으라고 하며 1인 상황극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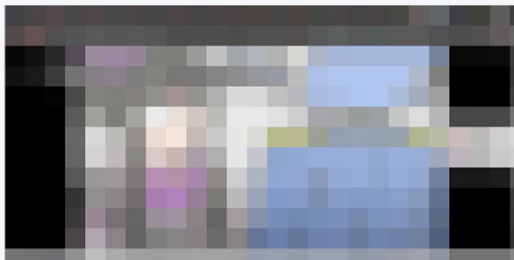
여: 자기야 저기 왜 가는거야? 저기 끊어졌는데.

남: 오빠만 믿어. (끊어진 다리를 향해 차로 달려가며)

여: 아닛/ 남: 오빠 믿지! (차는 물이 있는 쪽으로 달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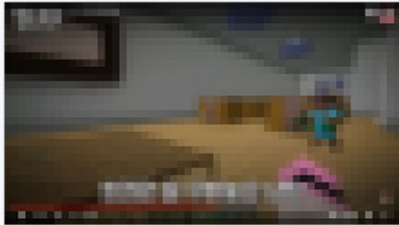
여: 와! 오빠, 멋있~ 라며 상황극은 마무리된다.

이 장면은 유튜버가 방송 도중 유머로 제시한 상황극이고 이러한 상황은 공상과학이라고 마무리한다. 하지만 상황극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리하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모험성을 추구하는 남성을 강한 남자로 묘사하고 있다. 여성은 남성을 믿고 의지해야 하고, 남성은 여성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어서 성별 고정관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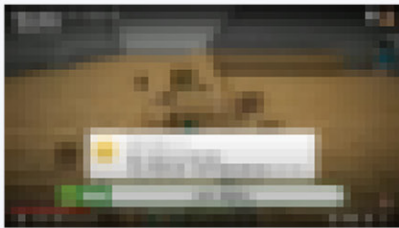


해당 영상은 남성 게임 유튜버가 자신의 과거 에피소드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었다. 이 유튜버는 과거 추천을 받아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를 풀어가는 도중 남성 유튜버가 여성을 구하는 역할로 나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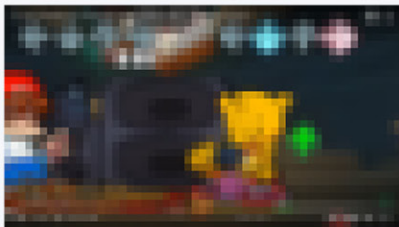
소개된 애니메이션의 영상 속 여성은 남성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남성은 여성을 구하는 존재, 여성은 보호받는 존재라는 성별 고정관념이 담겨있다.



목욕탕을 만드는 게임 도중 남자 게이머가 “여탕은 좀 꾸밀게 많다 내가 하는데”라고 표현하며, 이분법적인 사고로 접근하였다.



여자 게이머는 완성된 남탕을 가보고 여기가 여탕보다 잘 해놓았다며 감탄한다. 이때 “의외로 잘 꾸며 놓은 남탕”이라는 자막을 제시하면서 꾸미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잘할 것이라는 차별적인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게임 영상 속 두 캐릭터가 서로를 디스하며 배틀 랩을 하는 장면 중 일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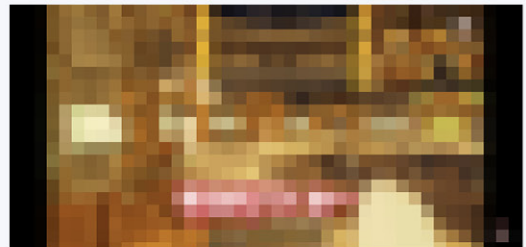
한 캐릭터가 “엄마 말 잘 들어 잘/ 채소도 잘 먹어여 한다/ 겹은 적당히만/ 방 정리는 당연히 하고”라고 하니 상대 캐릭터가 “왜 잔소리야/ 엄마도 아니잖아”라고 받아친다.

랩에서 표현된 내용에는 아이를 양육하고 잔소리하고 통제하는 사람은 어머니라는 고정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

(2) 특정 성 비하

유튜브 게임 방송 안에서 변태라는 말로 남자 게이머를 비하하는 발언을 농담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변태는 이상 성 행동을 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다.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채널에서 이상 성 행동과 상관없을 뿐 아니라 비난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상대를 변태라고 놀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분석내용



게임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한 남자 게이머가 머리에 왕관을 쓴 모습을 보며 서로 저게 뭐냐 하다가 한 여자 게이머가 저 팬티 뭐냐라고 하자 본인도 내 머리에 이게 뭐지?라고 한다. 그러니 다른 게이머가 자기가 낀 게 아니냐.. 뭐냐 재 변태인가봐.. 라는 발언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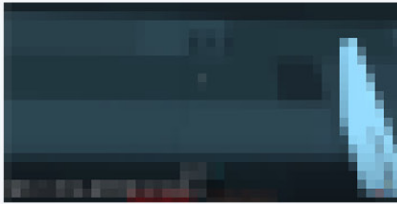
왕관을 속옷에 빗대고 장난치며 변태라고 이야기가 오고 가는 내용은 상대를 비하하는 발언이기도 하고, 영상을 시청하는 이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다.

(3) 성적 대상화

유튜브 게임 방송에서 성적 대상화는 주로 여성을 상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여성을 상품으로 여겨 값을 매기려는 시도는 자칫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여성을 사고팔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게 할 가능성이 있다.

게임 방송에 등장하는 남성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여탕을 관리하고 싶다’거나 ‘남자도 가슴이 있다’는 발언은 시청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여성의 몸을 상상하도록 하는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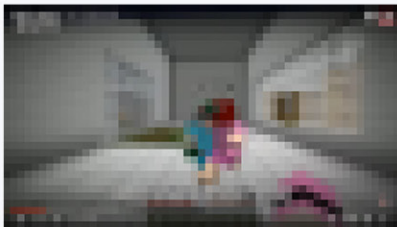
분석내용



해당 게임은 범인에게서 도망치는 컨셉으로 진행된다. 주인공은 여자 게이머로 시간 안에 탈출해야 한다. 도망가는 과정에서 벽을 사이에 두고 범인과 한 공간에 있게 되는데.. 이때 범인의 말이 자막으로 등장한다.

“저 여자는 얼마에 팔 수 있으려나..”

이는 간접적으로 여성을 상품화하는 내용으로 보여 진다.



목욕탕을 만드는 소재로 각자 하고 싶은 일을 정하라고 하자 한 남자 게이머가 “저는 탕관리를 하고 싶은데, 탕관리 중에서 여탕을 하고 싶습니다.”라며 여탕으로 직행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자 여러 남자 게이머가 “저도 여탕”이라 하며 여수선한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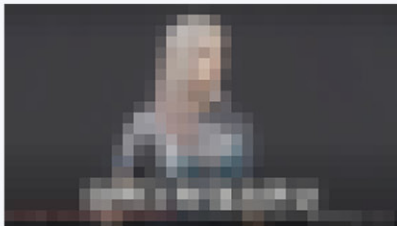
진행자가 여자는 남탕을 가보지 않아 남탕을 꾸미는 것이 어려우니 여자는 여탕, 남자는 남탕을 꾸미 자고 하니 남자 게이머들이 “에~”하며 아쉬움과 불만을 나타낸다.

역할을 정한 후에도 남자 게이머들은 여탕에 머물며 “여탕엔 뭐가 있나요?”라는 등의 호기심을 보인다.

진행자가 남자 게이머들을 내보내려 하자 숨어있는 남자 게이머들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타인의 사적인 생활을 훑쳐보고자 하는 것과 단순히 목욕하러 온 사람들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해당 장면은 생존게임(배틀 그라운드)을 하는 도중 상대를 죽이기 전에 “저 사람 죽이기 싫지만..”이라고 말한 후 상대를 죽인다. 그 후 “가슴에 손을 얹고”라는 남성 게이머의 말에 “팩트) 가슴 없음”이라는 시청자 채팅을 자막으로 보여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신체 일부인 가슴을 연상하게 한다. 게이머가 이 채팅을 보고 웃으며 “남자도 가슴 있어요”라며 농담을 하는데 이는 처음 의도했던 “가슴(양심)의 손을 얹고”의 단어에서 의도가 벗어나 가슴(신체)을 성적 대상화하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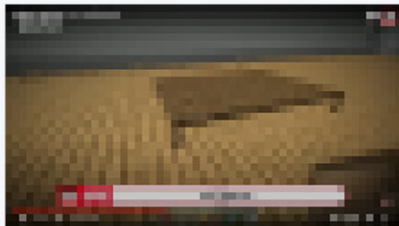


유튜버가 자신이 하는 생존게임(배틀그라운드)에 대해 분석하는 영상이다. 다른 게임에서 여자 아이돌을 캐릭터로 만든 것에 대해 비교 분석하면서 자신이 방송하는 게임의 초기 여성 캐릭터의 외모를 비판하고 있다. 여성 캐릭터의 의상 노출과 예쁜 얼굴로 게임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성적 대상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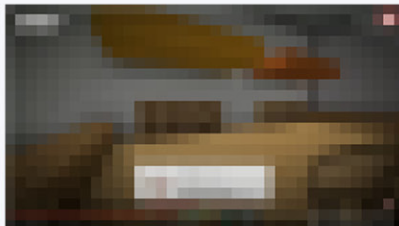
(4) 외모 지상주의

유튜버 게임 방송에서는 남성이나 여성의 외모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는 경우들이 있었다. ‘목욕탕에서 자신감 있는 남성은 벗고 달걀을 먹는다’는 발언은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의 생김을 남성의 자신감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후 여성이 ‘압박 봉대를 풀겠다’는 발언도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의 생김에 따라 자신감이 정해진다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외모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이 포함되어 있었다. 게임 속에서 일 잘하는 여성에 대해 예쁘다는 칭찬을 하는 것은 예쁜 여자가 능력 있는 여자라는 식의 발언으로 비춰질 수 있다. 또한 예쁜 여자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은 게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영상은 여성은 실력보다 외모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남자 게이머의 얼굴이 게임영상에 나왔을 때 상대의 외모를 호박에 비유하며 노래하는 장면은 장난이나 농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외모에 대한 비하로 해석될 수 있다.

분석내용



남탕에서는 목욕 끝나고 나체로 달걀을 먹는다 하자 여자 게이머가 그것을 지적하며 “자신감이네~”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들은 남자 게이머들이 웃는다. 그 이후에도 여자 게이머는 “자신감”이라는 말을 몇 번 더 반복한다. 이때 자막으로 “넘나 재밌는 것~ 온탕.. 흠. ㅎㅎㅎㅎ
자신감ㅋㅋ 착한생각착한생각”이라는 자막이 뜬다.
해당 장면은 알몸의 남성의 신체 중 특정 부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이는 남자의 몸에 대한 평가를 하는 동시에 남자의 몸을 정형화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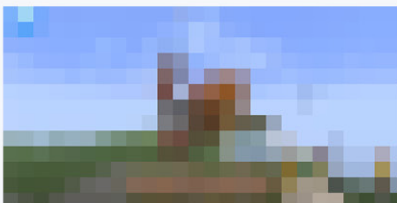
그 후 게이머들이 목욕탕을 꾸미고 있고, 성적인 대화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도 목욕탕 탈의실을 비추는 장면에서 “영상 19금인덱ㅋㅋ”, “은근 19금임 ㅋㅋ”이라는 댓글 자막을 삽입하였다. 목욕탕 탈의실은 일상의 공간으로 성적 공간이 아님에도 여성의 몸이 있는 공간을 모두 성적인 의미로 해석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하고 있다.

그러자 상대 여자 게이머도 “압박봉대를 풀어?”라는 말로 여자의 가슴이 클수록 좋다는 묘사를 은연중에 나타냈다. 이는 외모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후 압박봉대 이야기가 나오자 다들 웃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이는 성적인 발언을 희화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메인 진행자(여성)가 일을 열심히 하는 여자 게이머를 “진짜 선녀”라고 칭찬하니 다른 남자 게이머가 “누나는 미인이야”라고 맞받아친다. 그랬더니 해당 게이머는 “어, 알라”라고 말하며 자신이 일을 잘해서 칭찬받는 것을 외모로 칭찬하니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여성이 일을 잘할 때 일 잘하는 것에 대해 칭찬하면 되는데, 굳이 외모를 이용하여 칭찬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도 해당 영상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는 여자 게이머에게 “누나는 나무 썰 때가 제일 예쁘더라”라는 말로 여성의 외모와 능력을 동일시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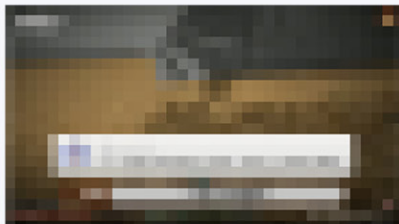


해당 영상은 호박과 수박이라는 주제로 시작한다. 시작부터 사과 같은 내 얼굴 노래의 음율에 맞춰 남자 게이머가 노래를 부르는 중에 한 남자 게이머의 실제 얼굴이 실수로 나왔는데 그것을 보고 “호박 같은 니 얼굴”이라는 노래를 크게 부르며 놀렸다. 조금 후에는 “호박 같은 니 면상”이라고 노래하며 상대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장난스럽게 하면서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5) 성희롱 및 성폭력적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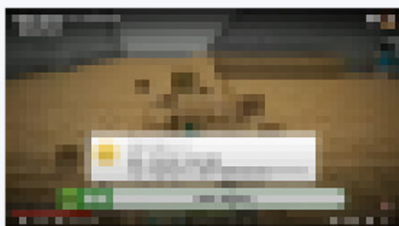
목욕탕을 만드는 게임 방송에서 남자 게이머 중 한 명이 ‘내가 아는데, 여탕은 꾸밀게 많아.’라는 발언을 한 후 게임 속 상황은 매우 어수선했다. 남자 게이머는 계속해서 자신이 여탕을 안다고 말했고, 다른 게이머가 ‘그 발언은 위험하다’고 하는 장면에서 여탕을 본 경험이 있다는 것인지, 가본 적이 있다는 것인지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데 해당 발언을 한 남자 게이머는 그 어수선했던 상황을 즐기는 듯 계속 웃는다. 이는 자칫 여탕을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연상하게 할 수도 있고, 동의 없이 여탕에 들어가는 것을 연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은 해당 영상을 시청하는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석내용



작업하는 중에 한 남자 게이머가 “내가 아는데, 여탕은 꾸밀게 좀 많아~”라고 발언하니 다른 게이머들이 어떻게 아느냐며 어수선했던 모습을 보였다.

“내가 아는데..”라는 발언이 다시 나오자 “네가 어떻게 아냐, “너 봤어?”라는 등의 발언이 이어지며 주의가 집중된다.



그 후 다른 게이머가 “그 발언 좀 위험했다”라고 말할 때 “여탕을 어케 알아요 ㅋㅋㅋ”라는 자막이 함께 나온다. 일주일씩 남탕과 여탕이 바뀌는 목욕탕도 있다는 내용이 자막으로 담기며 분위기를 바꾸려 하지만 해당 발언을 한 남자 게이머는 “내가 아는데..”라는 말을 하며 웃고 있다.

이는 타인의 일상적인 공간인 목욕탕을 성적 공간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해당 장면에서 일상의 행위인 목욕과 목욕하는 몸을 성적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므로 보여진다. 여성의 목욕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 대해 남성이 부적절한 호기심을 보이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4

나가며

한국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플랫폼인 유튜브, 이 중 게임 방송 채널의 성차별성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 모니터링이었다. 게임 방송 채널 중 구독자, 재생수 등 상위에 있는 채널 4개에서 229개의 영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선정된 게임 방송 채널은 대개 어린 아동·청소년이 시청하는 채널이었다. 총 2021년 8월~9월까지 업로드된 영상을 중심으로 성차별 사례를 모니터링하였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게임 자체의 성차별적 요소는 제외하였고, 유튜버의 행동, 대사, 자막 등 방송 내용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별 고정관념, 성적 비하 발언, 성적 대상화, 외모지상주의 등의 성차별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유튜브 게임 방송에서는 주로 강하고 자신의 의지가 강한 남성이 멋진 남성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반면, 여성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그려지거나 자녀의 건강과 생활을 책임지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한정되어 나타났다. 이는 성별 고정관념을 담은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에게 기성세대의 성별 고정관념을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 본다.

모니터링 대상 게임 방송 안에서는 게임 내용과는 크게 상관없는 남성과 여성의 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이 나타났다. 게임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여성에게 예쁘다고 말하는 것은 일을 잘하는 것은 예쁜 것이고, 예쁜 것은 일을 잘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논리가 펼쳐질 수 있다. 또한 게임에 등장하는 남자 캐릭터에 대한 외모 평가는 없으면서 여자 캐릭터는 예쁜 것이 좋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여성을 외모로 평가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해석되었다.

게임 방송 채널은 유튜버 또는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게임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이는 성인인 경우가 많다. 게임 방송을 보는 연령층이 다양하지만 그중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인 게이머들 간의 대화라고 생각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성차별적인 발언을 주고받는 것은 개인의 왜곡된 성 인식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어린 아동·청소년이 시청할 경우 어른들의 왜곡된 성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게임 방송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유튜버는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세심하게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모니터링의 한계점 및 후속 모니터링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모니터링 대상에는 게임 방송 채널을 중심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은 포함되지 않았기에 하이라이트 영상 또는 댓글 모음의 영상 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추후에는 게임 방송 스트리밍 영상이나 실시간 영상도 분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유튜브 내 상위 4개의 채널로 모니터링 대상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이번 모니터링 결과가 전체 게임 방송 채널의 내용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추후 더 많은 채널을 포함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게임 자체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많이 시청하는 게임 방송 채널을 분석한 결과로 게임 자체의 내용과 성차별성에 대한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추후 게임의 내용을 포함한 게임 방송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되길 기대한다.

2021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청소년 등장 채널

본 사업은 (사)탁틴내일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수행기관의 의견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들어가며

2019년 이후 우리 사회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사람들의 이동에 제약이 뒤따르게 되었다. 일상생활의 패턴이 변하게 되면서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가 개발되었고, 대부분의 여가를 온라인 매체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그 의존도가 높아졌다.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속 미디어의 접촉이 증가했다. DMC 미디어의 보고에 따르면 2021년 1월 우리나라 기준 소셜 미디어 이용률은 89.3%로 세계 평균 53.6%보다 약 1.7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DMC 미디어, 2021)⁵⁾. 또한 국내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앱은 '유튜브'로 2021년 4월 기준 순 방문자수는 3,766만명에 달한다.

온라인의 편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수용하게 되면서 원치 않는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폐해도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유튜브, 게임, SNS 등에서 가짜 뉴스, 정제되지 않은 정보들이 생성되고 퍼지면서 이러한 미디어와 가장 가까운 Z세대 아동·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디어는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주로 접촉하는 온라인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일 필요성이 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성의 발달이 미성숙한 시기이다. 미디어의 발달로 청소년들은 TV나 영화, 비디오 이외에도 인터넷이나 SNS, OTT 등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폭력적이거나 왜곡된 성 관련 정보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권희정, 신수진, 2020). 최근 아동·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유해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운 반면, 이들에게 제공되는 성 관련 정보는 그 수위를 조정할 만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자극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성 관련 정보는 청소년의 성인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 폭력은 특정 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경우가 많다. 젠더 폭력 예방을 위한 해결점으로 감수성 향상이 제시되고 있다. 젠더 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성인지 감수성은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 및 성차별·양성평등 의식 수준을 말한다(권희정, 신수진, 2020)⁶⁾.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젠더 폭력 예방과 해소,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고 있는 온라인 미디어를 모니터링하여 안전하고 평등한 온라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에게 성 평등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우리사회의 역할이자 현시대의

5) DMC미디어 (2021) '2021 소셜미디어 시장 및 현황 분석'

6) 권희정, 신수진(2020). 청소년의 성미디어리터러시, 성취용성이 성인지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간호학회 34(1), 22-34.

과제이다. 이에 (사)탁틴내일에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2021 대중매체 양성평등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채널 중 청소년이 등장하는 채널 속 성차별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기간 동안 총 69개의 동영상을 모니터링 하였다. 모니터링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에 연구된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를 기반으로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미디어 및 모니터링 관련 전문가 3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링단은 대학생 총 8명(남 4명, 여 4명)으로 구성하였다. 모니터링단을 선정하기에 앞서 모니터링 단원들을 대상으로 사전검사(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사전검사 평균점수가 높은 지원자로 모니터링단으로 선정하였다. 모니터링단의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1회)과 모니터링 증빙 및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교육(1회)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필터링할 수 있는 ‘블링’ 사이트를 이용하여 V-log, 구독자, 남녀, 0~24세로 필터링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필터링 된 채널에서 교복을 입고 등장하여 등장인물이 청소년임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는 채널 4개(A, B, C, D)를 선정하였다.

2 모니터링 개요

유튜브 순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청소년 등장 채널을 필터링 한 결과 상위 4개의 채널을 선정하였다. 채널 선정 후 각 채널별로 2021년 8월~9월에 업로드된 영상을 전수 모니터링하였다. 모니터링 대상 청소년 등장 유튜브 동영상은 총 69개였으며, 전체 재생시간은 598분이었다.

모니터링 대상 채널은 2021년 10월 25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채널별 구독자 수를 살펴보면 A채널이 191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B채널 123만 명, D채널 21만 1천 명 순이었다. C채널은 구독자 수 비공개였다. 분석 영상 수는 A채널 22개, B채널 20개, C채널 11개, D채널 16개로 총 69개였다.

- ❖ 모니터링 장르 : 유튜브 영상 중 청소년이 등장하는 청소년 채널
- ❖ 모니터링 기간 : 2021년 10월 25일~11월 12일
- ❖ 모니터링 대상 : 선정된 청소년 채널 중 2021년 8월~9월에 업로드 된 영상
- ❖ 모니터링 영상 수 : 69개
- ❖ 모니터링 인원 : 8명 (남4, 여4)

〈표 II-1〉 모니터링 대상 청소년 등장채널

no	채널 명	구독자 수 (2021.11. 기준)	분석 영상 수
1	A	191만명	22
2	B	123만명	20
3	C	구독자 수 비공개	11
4	D	21.1만명	16
합계			69

3 분석결과

1) 모니터링 영상 기본 정보 분석

모니터링 영상 분석 결과 성차별 내용이 나타난 경우는 34건(49.3%)와 성차별 내용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35건(50.7%)로 나타났다.

〈표 III-1〉 성차별적 내용유무

성차별 내용	개수	%
있음	34	49.3
없음	35	50.7
합계	69	100.0

모니터링 과정에서 성차별성의 범주는 총 5가지로 구분했다. 성차별의 범주로는 성별 고정관념 강조, 특정 성 비하, 성적 대상화, 외모 지상주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조장하는 장면이 있었다. 성차별성의 범주 중 성적 대상화가 166회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성희롱 및 성폭력을 조장하는 장면이 151회, 성별 고정관념 강조가 40회, 외모 지상주의 35회, 특정성 비하 6회 순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에서 나타난 성차별을 표현하는 형식으로는 화면이 362회, 자막이 335회, 대사가 323회였다. 청소년 등장 채널에서 성차별적인 내용이 등장할 경우 대부분 화면, 대사, 자막이 2개 이상 동시에 나타났다.

〈표 III-2〉 성차별 영역

영역	횟수	유형 및 구분 ¹⁾		
		화면	대사	자막
1. 성별 고정관념	40	32	31	40
2. 특정 성 비하	6	5	6	6
3. 성적 대상화	166	155	125	126
4. 외모 지상주의	35	21	30	29
5. 성희롱 및 성폭력적 장면	151	149	131	134
합계	398	362	323	335

1) 횟수, 유형 및 구분(화면, 대사, 자막, 기타)은 한 영상에서 중복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음. 이에 성차별 영상 개수와 무관하게 중복 응답한 결과를 도출함

성차별 내용이 나타난 영상의 경우, 하나의 영상에 2~5회의 성차별 횟수가 나타난 경우가 15건(44.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회가 6건(17.7%)이었고, 6~10회와 31회 이상이 각각 4건(11.7%)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11회~20회가 3건(8.9%), 21회~30회가 2건(5.9%)이었다. 모니터링 영상 중에는 하나의 영상에서 90회 이상의 성차별적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도 있었다.

〈표 III-3〉 영상별 성차별 내용의 횟수

성차별 횟수	횟수	%
1회	6	17.7
2회~5회	15	44.1
6회~10회	4	11.7
11회~20회	3	8.9
21회~30회	2	5.9
31회 이상	4	11.7
총계	34	100.0

성차별이 나타나는 34개 영상 중 성차별 내용이 전체 영상 중 짧게 언급된 경우는 19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성차별적 내용이 핵심적 주제인 경우 13개, 여러 주제 중 하나로 다룬 경우 2개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 성차별적 내용의 중심성

성차별 중심성	동영상 수
성차별적 내용이 핵심적 주제이다	13
여러 주제 중 하나이다.	2
짧게 언급되었다.	19
총계	34

2) 모니터링 내용분석(청소년 등장 채널)

(1) 성별 고정관념 강조

모니터링 분석결과 성별 고정관념 강조에 대한 영상으로는 총 3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1) 남성다움, 여성다움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드러내는 사례, (2) 남녀 성별을 기준으로 상하관계를 설정한 사례, (3)

가정의 일을 여성에게 한정하는 사례이다. 첫째, 남성다움, 여성다움에 대한 이분법사고란 남성은 능동적, 강인함, 이성적, 지배적, 거친, 현실적 등의 속성을 선천적으로 타고나고, 여성은 수동성, 연약함, 감정적, 종속적, 부드러운, 민감한, 감성적 등의 속성을 갖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은 이러한 속성에 의해 구분된다고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남녀 성별을 기준으로 상하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란 남녀 성별을 기준으로, 생물학적, 선천적, 혹은 사회적 상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성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이란 여성의 역할을 가사노동과 육아 등 가정과 가족 내의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여 지는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콘텐츠에서 성적 고정관념, 성적 대상화, 외모지상주의, 성폭력 및 성희롱 장면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콘텐츠가 많았다.

가. 남성다움, 여성다움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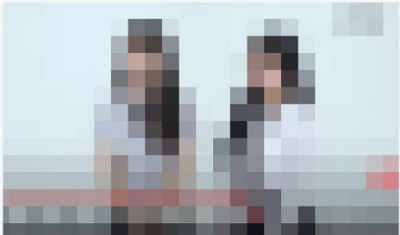
유튜브 채널 내에서 다루어진 남성다움, 여성다움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이 되는 영상에서 다루어지는 주된 남성다움에 대한 내용은, 예쁜 여성에게 반응하는 남성, 단단하고 강한 남성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남성다움을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해 영상 속에서 여성은 남성의 강인함과 남성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순종적이며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짐으로써 여성다움의 고정관념을 담고 있는 영상도 다 수 있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있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대로 반영되어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시청하는 아동·청소년이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분석내용



틱톡 영상 속 외국인 여성의 노출이 있는 장면을 보며 감탄하는 남자 청소년의 모습에 여자 청소년이 “마! 남자네”라는 자막을 붙여서 표현하였다. 영상 속 예쁜 여성 또는 섹시한 이미지를 가진 대상을 보며 감탄하는 남자 청소년을 “남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남성다움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나타내고 있다.

근육질의 남성이 등장했을 때 여자 청소년이 남자의 근육을 보면서 “단단함”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모습이 안정감을 준다고 말한다.

	남성의 근육과 단단함을 연결하며 특정 이미지를 통해 남성성을 강조하고 있어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사례이다.
	목소리 톤이 낮은 남성에게 전반적으로 “굵게” 생겼을 것 같으며 목소리가 굵으면, 눈썹이 짙고, 코도 높고 크며, 어깨도 넓을 것 같다고 표현하며 남성의 목소리와 신체 이미지를 연결하며 남성다움의 고정관념을 표현하고 있다.
	해당 영상은 예쁜 여성이 나타나 남자 청소년의 게임을 방해했을 때, 게임을 계속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테스트 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테스트 과정에서 예쁜 여자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게임 성공한 남자 청소년이 “예쁜 여성이 와서 흔들릴 뻔했지만, 무너지면 남자의 자존심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서 끝까지 남자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강한 남자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나. 남녀 성별을 기준으로 상하관계를 설정한 사례

청소년등장 채널에 등장하는 남·녀 청소년의 위계를 나타낸 사례이다. 제시된 사례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힘이 세고, 여성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을 보호하거나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해당 영상을 시청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강한 존재로서의 남성과 약한 존재로서의 여성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갖도록 하고 있다.

분석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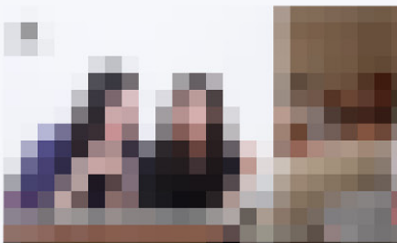
해당 영상은 “여자들이 섹시한 남자에게 끌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주제로 여자가 좋아하는 남성상에 대한 내용으로 전개된다. 이 과정에서

“여자들은 이런 거 좋아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차가 지나갈 때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아주듯 보호하는 남성에게 여성이 설렘을 느낀다고 묘사하고 있다. 이는 남성은 위험상황에서 여성을 보호해야 하고, 여성은 스스로 남성에게 보호받기를 원하는 존재로 표현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남성이 여성의 우위에 있다는 고정관념을 나타내고 있다.

다. 가정의 일을 여성에게 한정하는 사례

청소년등장 채널에서 나타난 영상의 일부는 어머니의 역할을 가사와 자녀 양육의 책임자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영상을 시청한 아동·청소년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한정적 사고를 가지게 될 수 있고, 나아가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분석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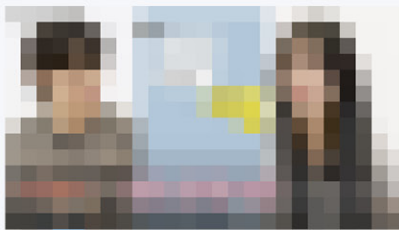


해당 영상은 부모와 청소년이 해외의 엄마를 표현한 틱톡 영상을 보면서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틱톡에 한 남성이 여장을 하고 집안일을 하는 엄마로 등장한다. 엄마를 흉내 내는 남성을 보고 “엄마를 흉내 내는 거구나.”, “집안일 하는 것처럼”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엄마로서 여성의 역할을 가사노동으로 한정하는 것을 영상화면, 자막, 대사로 표현하고 있다. 이때 영상에 등장하는 부모와 청소년은 모두 위의 내용에 동의하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가정에서 가사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여성이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2) 특정 성 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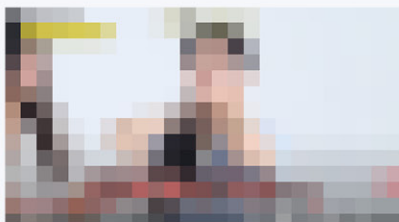
모니터링 분석 결과 특정 성 비하에 대한 영상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정 인물을 공주병이라고 표현하며, 여성은 조신해야 하고, 잘난 척을 하면 안 된다거나, 남성은 힘이 좋아야하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이 담긴 장면이 나타났다.

분석내용



해당 영상은 친구 간에 카톡 내용을 통해 카톡에 등장하는 인물을 평가하는 내용이다.

한 친구가 “나는 좀 쿨톤이고, 사람들이 여리 여리해 보여서 상처 줄까 봐 조심해서 대한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는 카톡의 내용을 읽으며 출연자들은 해당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 “약간 공주병 말기 증상”, “쿨톤병” 등 비하적 발언을 한다. 친구 간의 카톡 내용을 읽으며 해당 내용을 특정 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해석하며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이 영상을 시청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일상생활에서 친구 간에 이러한 비하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남성이 여자 청소년에게 “저보다 하체 힘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니 여자 청소년이 상대 남성에게 “빈약하시구나 ...”라며 서로의 신체에 대한 비하 발언하였다. 이는 여자는 하체가 날씬해야 하고, 남자는 하체가 튼튼해야 한다는 신체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담아 평가하며 비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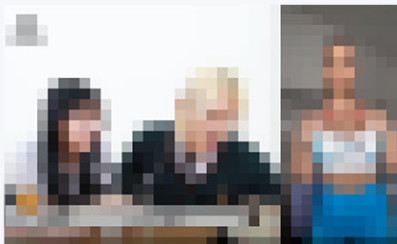
(3) 성적 대상화

모니터링 분석결과 성적 대상화에 대한 영상은 남녀의 몸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전시하거나 발언한 사례에 해당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성적욕망의 대상으로 묘사된 남성과 여성의 몸이 다르게 전시되고 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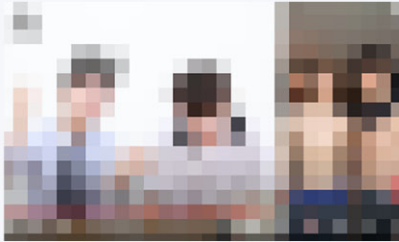
것이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경우 몸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비키니나 몸이 다 드러나는 운동복을 입고 등장하여, 마치 성인물의 등장인물을 보는 듯한 선정적인 장면들도 있었다. 청소년이 몸의 일부만 가린 성인 여성의 전신을 보며 평가하는 유튜브 영상은 이것을 시청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여성의 몸을 성차별적 시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적절하지 않다. 또한 얇은 허리와 큰 엉덩이, 예쁜 얼굴을 가진 여성이 섹시한 여성이라는 내용으로 구성된 영상은 시청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왜곡된 여성상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다.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은 여성과는 다른 복장을 하고 있다. 등장 남성은 대개 몸에 붙지 않는 일상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상의를 들어 올려 복근을 자랑하거나 상의만 탈의한 채 등장한다. 엉덩이를 흔드는 영상에서도 근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근육질의 몸을 가진 남성이 매력 있는 남성이라는 왜곡된 인식과 남성은 힘이 센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분석내용



해당 영상은 틱톡 리뷰가 높은 영상을 남녀 청소년이 함께 시청하며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틱톡 챌린지 영상에는 다양한 남성과 여성 외국인이 등장하고 있다. 틱톡 챌린지 영상에 등장하는 외국인 여성은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자신의 큰 가슴을 돋보이기 위하여 손으로 흔들기도 하고, 티팬티를 입고 엉덩이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영상을 본 남자 청소년이 굉장히 흥분하고 감탄하는 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여자 청소년은 외국 여성의 몸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엉덩이를 손으로 미는 장면이 나오자 한 남자 청소년이 부럽다는 표현을 한다. 여자의 엉덩이가 흔들리는 모습에 “찰랑찰랑”이라는 표현과 손으로 흔드는 것을 재현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노출이 심한 여성의 모습을 보며 섹시함을 논하고, 그 기준을 얇은 허리, 예쁜 얼굴, 큰 엉덩이로 제한하고 있었다. 해당 영상에서는 청소년들이 성인 여성의 섹시함에 대해 자연스럽게 논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는 시청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왜곡된 여성상을 갖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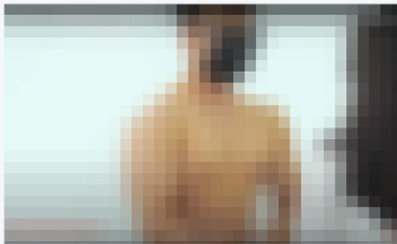


해당 영상에 묘사되는 남성은 근육질의 탄탄한 몸과 엉덩이 근육을 자랑하고 있다. 외국인 남성은 엉덩이를 흔들기도 하고, 옷을 올리거나 상의를 탈의한 채 등장해 복근을 자랑하기도 한다. 이때 여자 청소년은 영상을 보며 손 하트를 그리고 love u라는 자막이 나오며 반한듯한 모습, 남성의 복근을 보며 만족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남자 청소년은 남자의 영상을 보며 부러움과 감탄을 표현한다. 이는 남성의 성적 매력은 근육에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남성성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영상이다.

다음의 사례로 성적대상화를 다룬 영상 중 여자 청소년이 원하는 남성에 대한 실험영상이 있었다. 남성이 실제로 상의를 탈의한 채 등장하고 이때 여자 청소년의 반응을 다룬 영상도 있었다. 해당 영상에서는 키 큰 남성, 근육질 남성, 잘생긴 남성, 목소리 좋은 남성이 등장하고, 그런 남성들을 만났을 때 여자 청소년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근육질의 남성은 상의를 탈의하고 출연하는데, 여자 청소년들이 남성의 근육을 직접 만져보며 평가하고, 그에 반응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영상을 시청하는 수요자들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하고 있는 남성의 몸 보다는 여자 청소년의 반응에 더욱 초점을 맞추게 되고 반응에 대한 내용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해당 영상은 성적 대상화로 해석할 수 있지만, 동시에 남자의 근육과 힘은 든든함으로 연결지어 설명되고, 이는 여자를 지켜줄 수 있는 힘으로 묘사되면서 성 고정관념적인 시각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힘이 있어야 한다는 남성성과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서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분석내용



해당 영상은 여자 청소년들은 어떤 남자에게 끌리는지에 대한 실험 영상이다.

여자 청소년들은 출연 남성에게 자신의 요구를 말할 수 있고, 출연 남성은 여자 청소년의 요구를 들어준다. 근육질 남성은 등장 후 상의를 탈의하고 여자 청소년을 만나는데, 이때 여자 청소년들은 남성의 상체를 만져보거나 벗은 몸에 안기기도 하며, 근육이 있어서 탄탄하고 안정감 있다는 표현을 하거나 근육을 만지며 좋아하는 여자 청소년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는 남성은 키가 크거나 근육질이여야 여자가 좋아한다는 등의 남성이 가지고 있는 힘의 차이에 대한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서 남성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여자 청소년은 남성에게 의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자신을 보호해주는 남성에게 대한 선호를 나타내며 성별 고정관념을 표현하고 있다.

성적 대상화와 관련된 영상 중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외국 여성의 몸을 보았을 때 반응을 담은 것도 있었다. 이들이 함께 본 영상은 해외의 젊은 엄마라는 주제의 틱톡 영상이었고, 영상에서는 젊은 외국 여성(엄마)의 신체나 외모가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등장하는 예시 영상 속 여성들은 수영복이나 노출이 심한 옷, 몸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등장하여, 요즘 엄마들은 이렇게 젊고 섹시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있었는데, 이를 본 부모의 반응이 영상에 대한 비판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외모를 평가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함께 타인의 몸을 성적 대상화하고 평가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사이를 가깝게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부적절한 표현이 담겨있다.

분석내용



해당 영상은 해외의 젊은 엄마라는 주제의 틱톡을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보며 그 반응을 내용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영상에는 해외에 다양한 엄마가 날씬하고 큰 가슴, 예쁜 얼굴로, 섹시한 의상으로 등장하는 해외 젊은 엄마의 몸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영상에서는 보여 지는 외국 엄마를 보며 함께 부모와 청소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환호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부러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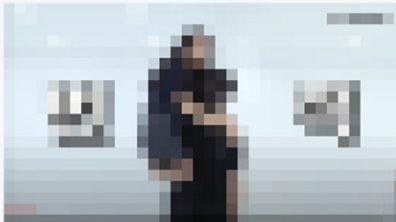
이 과정에서 여성은 아이를 낳은 후에도 외모를 가꾸어야 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외모 지상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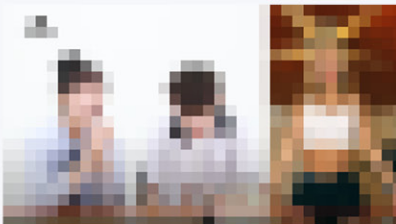
외모 지상주의와 관련한 영상은 외모가 남성이나 여성에게 필수적인 조건으로 발언한 사례와 남성과 여성의 미를 정형화하며 이러한 기준에 들지 못하는 면에 대해 비판한 사례이다.

영상에 출연한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의 큰 키, 근육질 몸, 잘생긴 외모에 환호했다. 특히 큰 키의 남자와 근육질의 남자 앞에서는 연약한 모습을 연출하며 보호받고 싶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틱톡 영상을 보며 청소년들이 영상 속 남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여자의 얼굴이 커버쳤다'라는 표현을 하거나 여성의 몸이 드러나는 영상을 보며 남녀 청소년이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은 여성은 예쁜 얼굴과 날씬하고 볼륨감 있는 몸이 필수라는 메시지를 준다. 틱톡 영상에서 잘생긴 외국인 남성이 등장했을 때, 이를 본 여학생은 자신은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얼굴만 잘생기면 된다는 발언으로 외모지상주의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외적인 부분이 전부는 아닌데, 분석영상에서는 남녀의 외모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이는 현대사회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를 시청하는 아동·청소년에게 더욱 왜곡되게 전달할 우려가 있었다.

분석내용



해당 영상은 여자 청소년들이 끌리는 남자의 매력 포인트에 대한 영상이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자 청소년들은 얼굴은 첫인상에 중요하고, 몸매는 남성적 매력은 근육질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큰 키의 남성은 꼭 안길 수 있어서 좋으며 남성의 외모가 필수조건이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 큰 키의 남성이 등장했을 때 여자 청소년들은 백허그를 해달라고 하거나 머리를 쓰다듬어달라고 요청하며 남성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어 하는 여자의 모습을 연출했고, 그러면서 만족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잘생긴 남성이 등장했을 때 여자 청소년들은 얼굴에서 빛이 난다며 저런 남자는 모든 여자들이 탐낸다, 기분이 나쁠 때 얼굴을 보면 속이 다 풀린다는 등의 표현으로 여자들은 남성의 외모가 절대적이라고 일반화하며 외모 지상주의를 표현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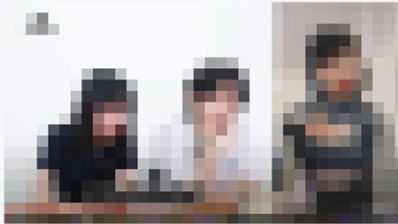


해당 영상은 틱톡 영상을 보며 남, 여 청소년들이 등장인물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이다. 날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큰 여성이나 잘생기고 근육질 남성이 나올 경우 외모에 감탄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영상을 보면서 “이건 진짜 얼굴이 커버졌다.”라고 말하거나 여성의 몸을 보며 “저 몸매 봐~”라고 말하며 여성의 외모를 정형화하고 있었다.

모니터링 분석 결과 외모지상주의는 특정 외모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그에 합당한 외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반대로 외모에 절대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그에 달하지 못할 경우 비판하는 경우도 있었다. 근육질의 남성의 몸이 나오는 영상 중 뚱뚱한 남자가 나왔을 때 짜증 난다고 얘기하거나,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남성의 외모를 슈렉으로 평가 절하 하는 청소년의 사연을 다루기도 했다.

최근 일반인의 SNS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속에서는 남성미와 여성미에 대한 정형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남성미와 여성미의 정형화된 기준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비난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다루어지는 온라인 매체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자신에 대한 신체 만족감을 낮추고, 과도한 다이어트나 성형 등의 부작용을 부추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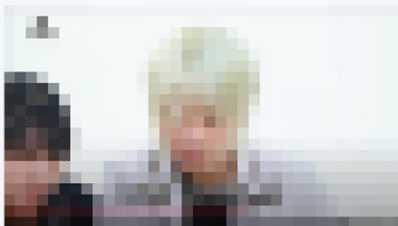
분석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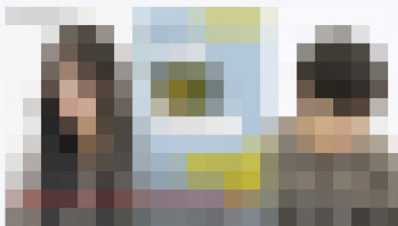
틱톡에서 거울 닦기 챌린지 영상을 남녀청소년들이 보며 평가하는 내용을 그린 영상이다.

한 여성이 거울 닦기 전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긴 머리에 긴팔 티셔츠를 입고 세정액을 거울에 뿌린뒤 닦고 나면 진한 화장을 하고 가슴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혀를 내밀고 있는 장면이 이어진다. 이것을 보고 남자 청소년이 환호를 지르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화장하기 전에는 아리따우시다”고 평가하고, 이후 장면에서는 “귀엽게 생겼는데 섹시하다”고 틱톡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고 있다.

뚱뚱한 남성이 거울 닦기를 시작할 때 여자 청소년이 다음 장면이 살 뻔 장면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대화내용에서, 영상 속 다이어트 전 후의 모습이 등장하자 여자 청소년이 “근육 봐~”라고 감탄하자 남자 청소년이 “나도 비슷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자 여자 청소년이 “뭘래~”라며 부정적인 눈으로 남자 청소년을 반히 쳐다보는 장면이 나온다.



영상 내에 한 여성의 거울 닦기 전 모습을 보며 남자 청소년이 쌍열도 할리퀸 닮은 것 같더라고 하자 여자 청소년이 나 지난번에 할리퀸 분장할 때도 이렇지 않았는데..라고 하니 남자 청소년이 “그건 너니까..”라고 받아치며 여학생의 외모를 영상 속 여자와 비교하여 그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투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사연자의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걸 아는 사연자의 친구가 사연자의 남자 친구의 외모를 평가하면서 키 175는 작은 것이고 외모를 볼 때, “슈렉 같다”라고 평가절하하며 자신의 기준에 들지 못하는 남성의 외모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5) 성희롱 및 성폭력적 장면

성희롱 및 성폭력을 조장하는 장면은 남성이나 여성의 몸을 만지거나 특정 부위를 주시, 혹은 성적 농담의 소재로 삼아 남성이나 여성을 불편하게 하거나 인격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폭력을 연애감정이나 사랑으로 낭만화 하는 사례이다.

가장먼저 남성이나 여성의 몸을 만지거나 성적 농담의 소재로 삼아 상대를 불편하게 하거나 인격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틱톡 영상을 보는 과정에서 나타난 경우가 있었다. 남, 녀 청소년이 함께 틱톡에 등장하는 여성의 몸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여성의 몸에 대한 성적 묘사나 농담을 하는 장면이다. 두 번째로 남자 청소년이 틱톡 영상 내 여성의 몸에 대한 구체적 묘사를 함으로써 함께 있는 여학생을 성적으로 불편하게 하는 장면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는 남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성애 반응을 하는지 실험하는 영상이 있었다.

여기서는 주로 성희롱을 연상시킬 수 있는 장면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피해자는 남성인 경우도 있었고 여성인 경우도 있었다. 다만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대해 성적 농담을 하거나 성적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경우 여자 청소년은 성적 불쾌감이나 불만을 표현한 반면, 성인 여성이 남자 청소년에 대해 성적 농담을 하거나 일방적인 스킨십을 할 때 남자 청소년은 그것을 즐기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이 과정에서 끝까지 반응하지 않는 남자 청소년은 이성적인 존재인 남자로서 자존심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인터뷰 내용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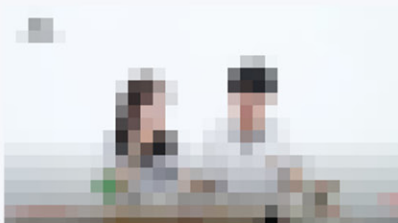
성인 여성이 남자 청소년을 유혹하기 위해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했을 경우, 남자 청소년은 그것에 반응하고 좋아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은 시청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남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스킨십을 좋아한다는 비합리적인 통념을 강화할 수 있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성인 여성이 남자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등장하는 출연자(남자 청소년)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정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등장 유튜브의 대부분은 등장하는 청소년의 의도보다 그들의 반응을 재미와 흥미의 요소로 소비하기 위한 제작자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상 속 청소년들의 행동, 대사, 행위를 포함한 인식을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 사례들과 같은 영상이 재생수가 올라가고 더 많이 소비되는 사회 문화에 있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시점이다.

분석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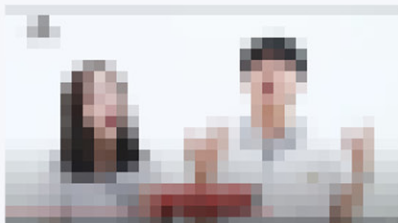
해당 영상은 틱톡의 무도회 드레스 챌린지를 보며 남, 여 청소년들의 반응을 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등장하는 한 여성이 드레스로 바뀌자 여자 청소년은 멋있다고 한 반면, 남자 청소년은 “(가슴에) X라인 보여?”라고 한 후 자신의 손을 가슴에 대고 모으며 “영혼까지 끌어 모았다”라고 표현하며 성적 농담을 하고 있다.

여성이 파티 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며 남자 청소년이 “파티복 입을 때 원래 불화자(브레이지어) 안 입어요?”라고 질문했고, 이때 자막으로 그 대목을 강조하였다. 그 상황에서 옆에 함께 출연한 여자 청소년은 “그게 지금 중요하냐”라고 답하며 불쾌함을 드러내는 장면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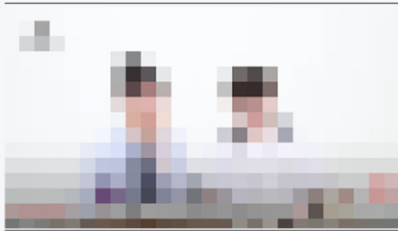


파티복으로 입고 가슴이 큰 여성이 나타나자 해당 여성을 향해 “뭐 넣은 것 아니냐, 코코넛”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등장 인물들이 농담을 하며 웃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그것을 희화하여 표현하고 있었다. 같은 장면에서 남자 청소년은 함께 출연한 여자 청소년의 이름을 대며 “00이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이라는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말을 했고, 이것이 자막으로 나오며 등장 여자 청소년이 불쾌감을 느낄만한 상황을 만들었다.

등장하는 여자 청소년이 한국에는 “이런 (드레스를 입는) 파티 안 하나?”라고 하니 남자 청소년이 “한국에서 이런 파티해도 너 같은 사람이 오면 그게 파티인가요?”라며 함께 출연한 여자 청소년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말을 하였고, 이후 여자 청소년의 당황하는 얼굴을 비추며 (심한말)이라는 자막이 붙었다.



가슴 큰 여자가 드레스를 입고 달려오는 장면에서 여성이 달리는 과정에서 가슴이 흔들리는 것이 부각된 영상이 나온다. 이를 보며 남자 청소년이 환호하며 여성의 가슴에 대해 “짐볼이 이렇게 덜컹덜컹”이라고 여성에 대한 성적 농담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함께 출연한 여자 청소년이 불쾌해하며 “남자 언제 나와!!”라고 불만을 표현한다.



틱톡 영상 속 외국 남성의 근육질 엉덩이를 보며 여자 청소년이 “뽕덩이 한번 때려보고 싶다”라고 신체 비하 표현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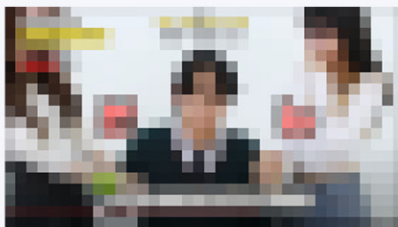
틱톡 영상 속 외국 남성분의 가슴 털을 주시하며 여자 청소년이 “오오 만지고 싶어”라고 말하며 타인을 성적 대상화하고 있었다.



해당 영상은 영상 속에서 예쁘다고 표현되는 여성의 유혹 시 남자 청소년의 반응을 실험하는 내용이다. 여성 앞에서 안대를 벗고 웃으면 탈락하는 실험, 여성과 눈 맞췄을 때, 여성과 손잡지를 낄 때, 여성이 남자 청소년의 옷을 끌어당겨 얼굴을 가까이 했을 때, 여성이 남자 청소년의 얼굴을 어루만질 때 남자 청소년의 반응을 다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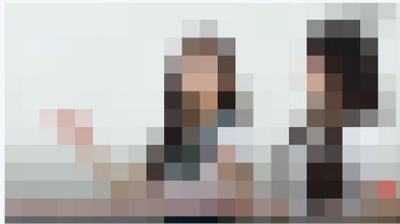
등장하는 남자 청소년이 성인 여성의 유혹하는 듯한 언행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유머로 소비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마음먹고 유혹하면 남성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잘못된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남자 청소년을 유혹하기 위해서 “나 안 봐줄 거야?”라는 발언과 동시에 성인 여성은 가슴이 당도록 포옹을 하기도 했고, 두 명 혹은 세 명 여성이 한 남자 청소년을 유혹하기 위해 동시에 스킨십을 하기도 한다. 남자 청소년은 여성을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잡은 두 손을 꼭 잡고 있으면서 본능이라고 말한다. 모르는 여성이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가까이 오는 것이 불쾌할 수 있는데, 남자는 모르는 여성이라도 스킨십은 다 좋다는 잘못된 성별 고정관념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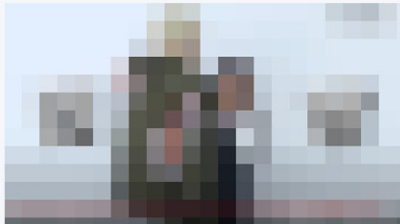


노출된 옷을 입은 예쁜 여성이 등장했을 때도 남자 청소년은 게임을 계속해야 하는 미션을 주고 상황에 따라 남자 청소년의 반응을 기록한 영상이다.

말로 유혹하기, 가벼운 스킨십, 진한 스킨십의 순으로 레벨이 올라가도록 해 놓고 남자 청소년의 반응을 다루었다. 이때 여성은 남자 청소년에게 약한 모습 보이며 자신과 놀아달라고 하거나, 애교를 부리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해당 영상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등장하는 여성의 신체를 강조하는 복장에서 성적 대상화의 모습을 발견하거나, 여성의 행동을 통해 여성성을 강조하는 성별 고정관념을 나타내기도 한다.



여성은 키 큰 남성을 좋아한다는 전제로 진행되는 영상이다. 키 큰 남성이 여자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들어주자 남성이 마음에 든 여자 청소년은 가뒷두고 싶어요, 아무도 못 보게.”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타인을 통제하는 폭력적인 인식을 사랑으로 낭만화하고 있다.



“어떤 남자 스타일이 좋아?”라는 주제로 여자 청소년이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에 대한 내용이다. 남성이 여자 청소년에게 벽치 기를 하는 모습이 설레는 행동으로 묘사된다. 남성이 벽치기를 하는 행위가 강압적 행위임에도 이것에 여자 청소년이 설레어 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4

나가며

유튜브 청소년 등장 채널 5개의 내용을 일부 모니터링 한 결과 69개 영상 중 34개 영상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나타났으며, 그 안에서 400회에 달하는 성차별적 장면이 묘사되고 있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성적 대상화로 166회에 달했고, 그다음으로는 성희롱 및 성폭력적 장면 151회였다. 그 외에도 성별 고정관념 강조가 42회, 외모 지상주의가 35회, 특정 성 비하도 5회 나타났다. 영상 하나에 여러 범주의 성차별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포함된 경우가 많았다.

여러 가지 성차별적 범주 중 성적 대상화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특히 외국인 여성이 가슴과 엉덩이 등 특정 신체를 노출하는 의상을 입고 몸을 흔들거나, 특정 자세를 취하는 틱톡 영상을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이 함께 보며 모니터 속 여성에 대한 몸매나 얼굴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같은 주제의 영상에 외국인 남성이 등장할 경우 편안한 일상복 차림으로 등장하여 복근이나 하체 근육을 과시하거나 상의를 탈의하고 포즈를 취하는 경우가 있었다. 같은 주제의 영상에서 여성이 남성과 같은 옷을 입을 경우는 거의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등장 청소년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를 통해 같은 주제의 영상에 여성과 남성을 어떻게 다루는지 차이를 확인할 수 있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날씬하면서 풍만한 몸으로, 남성의 아름다움을 근육질의 탄탄한 몸으로 정형화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등장 청소년들은 자신의 몸과 비교하거나 부러워하는 것으로 그려지면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건강한 몸과 아름다움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하고 있었다. 또한 등장 청소년들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시청하는 아동·청소년도 그에 동의하도록 하는 구조였다.

유튜브에서는 성과 관련된 콘텐츠를 주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이 등장하는 채널에서도 자극적인 컨셉과 성별 고정관념적인 시각을 부각시키는 형태로 영상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실제로 모니터링 분석대상 영상 여성의 노출이 심한 영상일수록 조회 수가 많았는데, 가장 많은 것은 230만 회 이상인 것도 있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도 여전히 여성이 성적 대상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 등장 채널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담은 영상에서는 인간을 성적 흥미의 도구로 그리면서 이를 굉장히 가볍게 다루고 있었다. 성인 외국인 여성의 몸을 평가하거나 그 과정에서 등장 여자 청소년의 외모를 비교하는 장면도 다수 포함되었다. 여자 청소년에게 성인 남성이 등장하여 유혹하는 장면이나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 여성이 유혹하는 장면에서는 청소년이 성희롱 당하는 장면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폭력적인 장면이 묘사되기도 했다. 이는 등장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청하는 아동·청소년에게도 성을 흥미의 도구로만 알게 하거나 폭력을 합리화하는 가치를 갖게 할 수 있어 문제적이다.

모니터링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이 등장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기성세대의 성문화를 답습하는 청소년의 성문화가 표현되고 있었다. 특히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보호받고 싶어 하는 존재로서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 바탕에 깔려있었다. 영상에는 청소년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도 어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요즘 청소년의 성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필요하다. 실제 청소년이 등장하는 유튜브 영상의 경우 청소년의 현실을 반영하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을 상품화하고 기성세대의 성 통념을 투영하는 성인 제작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을 이용하여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성차별적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성 상품화를 통해 창출되는 유튜브의 수익구조에 청소년이 활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시간이 갈수록 온라인 속 유해 매체가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청소년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온라인 매체의 발달은 아동·청소년에게 미디어의 수요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해주었다. 향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아동·청소년이 비판적인 미디어의 수용자인 동시에 윤리의식을 지닌 미디어의 제작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나아가 온라인 미디어 제작자로서 갖추어야 할 혐오 표현 배제, 성 평등, 인권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가정에서 부모는 아동·청소년이 향유하는 온라인 문화를 이해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온라인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기성세대와 아동·청소년의 문화적 간극이 커지고 있다. 현대사회의 온라인 문화는 아동·청소년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와 기성세대는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시청하는 영상 속 성 정보는 매우 차별적이고 선정적이라는 것을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알게 되었다.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성 평등적 사고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 교육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빠르게 변화하는 아동·청소년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성 평등에 대한 가치와 윤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의 역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빠르게 변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문화를 반영한 차별화된 부모 대상 성교육도 요구된다.

다양한 차원에서의 교육은 아동·청소년이 미디어 환경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외에도 사회적으로 유해환경 차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는 기존의 정책의 틀 안에 두고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등 사업자는 생성되는 영상들이 아동·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우리 사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를 기대한다.

부록

유튜브 모니터링 내용분석 지표(가이드라인)

No. : _____

모니터 요원 이름 : _____

작 업 날 짜 : _____

I. 기본 모니터링 정보

1. 채널 명 : _____

2. 크리에이터 아이디/닉네임 : _____

3. 영상 제목 : _____

4. 영상 주소 : _____

5. 게시 일자 : 예) 2021-10-25(월) _____

6. 재생(분) : _____

7. 조회 수 : _____

8. 추천 수 : _____

9. 댓글 수 : _____

II. 모니터링 체크사항(*복수응답)

1. 영상분석

1-1. 성차별적 내용의 포함 여부

- ① 없다 ② 있다(2-2로 이동)

1-2. 성차별성 내용 횟수 (마지막에 작성)

_____ (주관식 작성)

1-3. 성차별적 내용의 중심성

- ① 성차별적 내용이 핵심적인 주제이다
 ② 여러 주제 중 하나이다
 ③ 짧게 언급되었다(욕설, 지칭, 표현, 대사, 행동 등)

2.* 내용 성차별성

2-1. 성차별적 내용 유형 및 구분

- ① 영상화면 ② 대사 ③ 자막 ④ 기타 ()

① 성별 고정관념 강조

1) 성별 고정관념 강조 (일반적인 생각이나 신념)

가. - 여성은 수동성, 연약함, 감정적, 종속적, 부드러운, 민감한, 감정적 등의 속성을, 남성
 은 능동적, 강인함, 이성적, 지배적, 거친, 현실적 등의 속성을 선천적으로 타고 나며
 여성과 남성은 이러한 속성에 의해 구분된다고 여기는 이분법적인 사고

나. - 남녀 성별을 기준으로, 생물학적, 선천적, 혹은 사회적 상하 관계를 설정하는 것
 (예. 남자가 태어날 때부터 더 강함, 근육이 많으니 선천적으로 힘이 썸, 여자가 남자

보다 머리가 덜 좋기 때문에 여자는 승진이 어려움 등)

- 다. - 남성은 경제활동과 가족 부양 역할을 못하면 남성으로서 실패하는 것으로 간주함
 - 여성의 역할을 가정과 가족 내의 것으로 한정 함 (가사노동, 육아 등)
- 라. - 여성의 역할을 가정과 가족 내의 것으로 한정 함 (가사노동, 육아 등)
- 마. - 가사 노동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며 생산적인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가사노동 평가절하)
- 바. - 여성의 모성애를 생물학적이고 자연스러운 속성으로 간주하여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여성을 비판하거나 나아가 처벌하는 이야기 구조, 대사나 장면 등을 말함 (모성 이데올로기, 출산을 의무화함 등)

② 특정 성 비하

2) 특정 성 비하

- 사. - 성별 비하, 혐오적 발언을 하는 것 (혐오표현의 예. 한남충, 꼴페미, 김치녀 등)
- 아. - 여성의 경우 미성숙하고 열등한 존재로 묘사하는 것
- 자. - 남성의 경우 능력이나 체력이 부족한 것을 경멸적으로 표현
- 차. - 성소수자(게이, 레즈, 트랜스 젠더 등)를 대상으로 비하 또는 혐오표현을 함

③ 성적 대상화

3) 성적 대상화

- 카. - 남성의 몸(가슴, 엉덩이, 복근 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전시함
- 타. - 여성의 몸(가슴, 엉덩이, 복근 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전시함
- 파. - 남성의 몸(가슴, 엉덩이, 복근 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발언함
- 하. - 여성의 몸(가슴, 엉덩이, 복근 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발언함
- 거. - 성소수자의 몸(게이, 레즈, 트랜스 젠더 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전시하거나 묘사하는 발언함

④ 외모 지상주의

4) 외모 지상주의

- 너. - 외모가 남성에게 절대적 가치이며 필수적인 조건으로 발언함 (예. 잘생기면 용서됨)
- 더. - 외모가 여성에게 절대적 가치이며 필수적인 조건으로 발언함 (예. 예쁘면 용서됨)
- 러. - 남성의 미를 키, 몸무게, 얼굴 크기 등에 따라 정형화하며 이러한 기준에 들지 못하는 면에 대해 비판함
- 머. - 여성의 미를 키, 몸무게, 얼굴 크기 등에 따라 정형화하며 이러한 기준에 들지 못하는 면에 대해 비판함

⑤ 성희롱 및 성폭력적 장면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조장하는 장면)

5) 성희롱 및 성폭력적 장면의 낭만화

- 버. - 여성의 몸을 만지거나 특정 부위를 주시, 혹은 성적 농담의 소재로 삼아 여성을 불편하게 하거나 인격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 서. - 남성의 몸을 만지거나 특정 부위를 주시, 혹은 성적 농담의 소재로 삼아 남성을 불편하게 하거나 인격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 어. - 성폭력을 연애감정이나 사랑으로 낭만화하는 것 (예. (동의없이 또는 강압에 의한 스킨십 상황에서) '사랑하면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야?', '사랑하니까 만지고 싶은 거야' 등의 발언/ 강압적인 스킨십 후 설렘을 느끼거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 장면을 묘사한 내용 등)
- 저. - 성희롱과 성폭력이 피해자로부터 유발되었다는 발언 (통념, 예. 밤늦게 짧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니까 그렇지, 모르는 사람 차에 타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2-2. 성차별적 장면, 내용 증빙작성



2021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타티나일